

## 경북도, 저출생 극복 1조2000억 투입...

이철우, 진정한 지방시대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경북돌봄 융합 특구 지정 정부 예산대폭투입 요청

경북도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 계획을 발표, 저출생을 극복하는 경제 환경 개선과 문화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망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을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한다.

**■민남주선분야**  
△미혼남녀 커플 대상 국제 크루즈 여행 제공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

리’ 진행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출산분야**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돌봄분야**  
△공공단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도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안심주거분야**  
△3자녀 가정 큰집 마련 지원 △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신축약정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일·생활균형분야**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 무실 △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분야**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이 추진된다.

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돈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 1100억 원을 긴급히 수혈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한다. 김성용 기자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쪽파 수확 일손돕기 구슬땀  
예천읍행정복지센터는 13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동본리 소재 쪽파 수확 농장을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직원 25명은 쪽파를 적기에 수확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농가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도왔다. <사진=예천군제공>

## 장육사 영산회상·지장시왕도 보물 지정 예고

역사적 의의 학술적 가치 높아  
영덕군, 총 4건 국가 보물 보유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장육사(莊陸寺)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와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장육사는 한국 불교의 3대 화상이라 불리는 나옹왕사(懶翁王師, 1320~1376)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다.

1989년 건칠관음보살좌상(盈德 莊陸寺 乾漆觀音菩薩坐像)이 보물로 지정된 이래 35년 만에 3건의 보물을 소장하게 된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지장시왕도는(地藏十王圖)는 지장보살과 시왕 등 총 31구의 존상을 좌우 대칭으로 표현한 불화이다.

두 불화 모두 비단 바탕의 화려한 채색으로, 1764년(영조 40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제작 화승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원래의 봉안 사찰에서 제작 당시의 목적대로 유지·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두 불화는 한 사찰 내에서 각기 다른 화승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불사를 진행해 불교회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에 대한 보물 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의 문화유산인 장육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가 보물로 지정 예고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고 숨어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추가 발굴해 영덕군의 전통문화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

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21년 영덕 괴시마을(국가민속문화재), 영덕 장육사 대웅전 벽화(경북도 유형문화재) △2022년 영덕 옥계 침수정 일대(명승),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국가민속문화재) 등 매년 2건 이상의 국가 또는 경북도 문화재를 지정받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 △영덕 토영(경북도 무형문화재) △영덕 동애고택(경북도 민속문화재)가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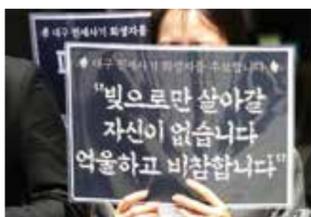
올해 2건의 보물을 지정받으면 총 4건의 국가보물을 보유하게 된다. 조여은 기자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자 구제해 달라 호소  
8번째 희생자 추모분향소  
5월17일 동성로에 설치...

전세사기·강동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1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남편에게 발간됐다. 그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빌다다가주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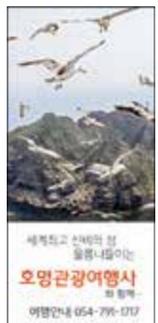
고인은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빛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고 적었다. 조미경 기자



전세사기·강동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려받지 못했다.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빛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고 적었다. 조미경 기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절경이 펼쳐지는 오영관광여행사

### 단체장 일정



오도창 영양군수는 14일 오전 영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2024 제1기 나훈자갈기밭대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4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리는 재경달성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 전국장애학생체전, 경북 11개 종목 139명 참가

경북교육청, 대회 참가 80명  
장애학생선수 학생당 40만원  
훈련비 지원... 꿈나무 키위

경북교육청이 14일부터 4일간 전남 일대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1개 종목, 139명의 선수단을 보낸다.

경북에서는 이번 대회에 농구, 디스크골프, 수영 등 11개 종목에 총 139명(선수 80명, 임원과 지도자 59명)이 참가한다. 선수는 특수학교 61명, 일반 학교 특수학급 19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 선수들에게 훈련 예산을 지원하고, 종목별 선수 선발과 강화

훈련으로 장애 학생 체육 꿈나무를 키워왔다. 대회에 참가하는 80명의 장애 학생 선수들에게 학생당 4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해당 종목의 전문교사에게 지도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운동부에 종목별로 2300여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동계 강화훈련을 위해 특수학교 8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 18교에 모두 2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영주시 감가무량 영주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펼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섭여진다  
영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영주 부석사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옥수수로 대이동

수성구는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옥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옥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한 새끼 두꺼비들은 습한 날 위주로 보름에 걸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망월지에는 매년 2,3월경 1000여마

리의 성체 두꺼비가 옥수산에서 내려와 앉컷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 이 약 2cm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후 5월 중순 쯤 수만 마리로 때를 지어 서식지인 옥수산 일대로 이동한다. 조미경 기자

대구,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 특·광역시 중 1위 쾌거

달성군 1위, 북구 2위, 군위군 4위 특·광역시 중 대구시 만 순위권

대구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달성군은 지난해 우수에 이어 올해 전국 지자체 최우수를 차지했다.

시는 12개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3800여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수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배출사업장 관리 실적에 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률, 위반사항 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등을 정량 평가했고, 대구시는 17개 광역지자체 평가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려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다.

또한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도 달성군과 북구가 각각 5그룹(배출사업장 270개소 이상) 1위, 2위를 차지했고, 군위군이 1그룹(배출사업장 46개소 이하) 4위를 차지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기초지자체는 배출사업장 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뉘 그룹별 심사

가 이뤄졌다. 달성군은 배출업소가 가장 많은 5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4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위반건수 186건, 그 중 고발 54건, 행정처분 107건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해 속한 45개소 지자체 중 최우수(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작년 점검 대상 배출사업장 2107개소를 100% 점검 완료했고, 486개소의 위반사업장에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740건의 대기와 수질오염도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다.

대구 지역은 특히 성서·염색·서대구산업단지 등이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어, 시민의 환경수준 기대치를 충족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환경관리 노력과 투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의 지원과 관리 능력도 동반돼야 한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 환경기술진단과 컨설팅, 환경기술인 교육 등을 실시해 사업장별 관리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최근 도심 확장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구 시민들이 대도시 중 최고의 환경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동구청, 2024 동구 음식문화축제 개최

17~18일까지 동촌유원지 녹수대 일원



동구청은 오는 17~18일 양일간 동촌유원지 녹수대 일원에서 '2024 동구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부제는 '대구 동촌유원지 힐링 리버파크 오리바다'로 금호강, 오리바, 힐링 등 동촌유원지의 특색을 담아 비사하는 동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 첫날인 17일에는 불로중오케스트라시

전 공연을 시작으로 푸드 카테일쇼, 2군작전사령부 군악대 공연, 음식문화 퀴즈쇼, DJ BOX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18일에는 영농조합법인 팔공 김치의 후원으로 '동촌 리버파크 가요제가 열린다'.

녹수장터에는 동구의 먹거리 골목별 특색을 담은 감성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며, 동촌유원지 상인회가 후원하는 다양한 경품추첨 등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전사·홍보체험관도 운영된다. 동구 대표음식, 세계음식 전시 및 우수식품 홍보판매관, 핸드드립, 오리바, 솜사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대구 최초의 유원지라는 유서 깊은 역사성과 관광 활용성 등의 가치를 녹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동구 대표 축제로 발돋움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힐링하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멋진 축제에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성황리 폐막

아시아 최대 거리예술축제로 문화예술도시 대구 위상 확인

시민이 만들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아시아 최대 거리예술 축제인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금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12일 양일간 국제보상으로 일대에서 개최된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에는 119개 팀 4천여 명의 퍼레이드 팀과 1천여 명의 거리예술 공연팀이 참여한 가운데 씬 없이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의 백미인 일반, 아동청소년, 실버, 해외 4개 부문의 퍼레이드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등 해외 9개국 18개 팀과 국내 101개 팀이 마칭밴드, 댄스,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

르의 화려하고 이색적인 광경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퍼레이드의 대상은 70명이 창작무용과 치어리딩, 농악의 융합 퍼포먼스를 선보인 대구팀 '늘품이 자라났다'.

최우수상은 일반부 '천무&췌피언(구미)', 아동청소년부 '점프왕즈 줄넘기(대구)', 실버부 '치어마미 블랙핑크(삼척)', 해외부 '리틀 스텝 팩토리(일본)'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 퍼레이드에는 대흥독수리 연날리기 팀, 200명 규모의 라인댄스협회 등 다채로운 색채의 총 61개 팀이 참가해 시민주도형 대구 대표 시민축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거리 경연으로 개최된 파워풀 K-댄스파이터에는 대만, 일본 등 해외 참가팀을 포함한 수준 높은 실력의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 K-댄스를

선보여 K-컬처와 대구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

시민체험부스로 구성된 엔조이 존에서는 ㈜유엔디 '첨단푸드봇카페', 사진작가협회 '인생사진 찍어주기' 등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동성로축제, 대구생활문화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동성로 일원에서 동시 개최됨에 따라 도심 곳곳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동성로 인근 상가에는 활기가 넘쳤다.

배경식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축제를 통해 다양한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타 지자체와 공동 관광객 유치 나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협약 통해 지역 공동 상품 개발

달성군은 지난 1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성주군을 잇는 여행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5월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상품을 1박 2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달성군의 비출산에 비롯한 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도동서원 등과 성주군의 한개마을 등 지역 간의 다양한 관광지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오는 5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외 홍보 및 고객, 투어 운영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동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한 후 전담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모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며,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관광콘텐츠 공유로 달성군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성군만의 차별화된 체험관광을 통해 타지역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이 확 바뀐다...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분석, 연구

2023년 '군위군 공간계획 연구그룹' 발족... 7차 회의까지, 선제적 대응



군위군의 도시공간이 바뀌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군위군 공간계획 연구그룹' 제 7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3년에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통합신공항 연계 군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분석하고 군위군 공간개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군은 지난 2023년 12월에 군위군 공간계획 연

구그룹(이하 '연구그룹'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현재 7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이 연구그룹은 총괄부서인 공광도시개발과를 필두로 기획감사실, 정책추진단, 인허가과,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여 전체 5개 부서, 8개 팀,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의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에 대한 각 팀별 연구과제를 탐구, 분석,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매 회의 때마다 군수가 직접 주재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그룹은 지난 1월 11일에 있었던 대구시의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보다 선행된 것으로, 군위군이 주도하는 지역공간개발계획을 목표로해 군위군의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하고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군위군에서 선제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또 군위군이 지역공간개발 구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향후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공항 및 배후도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온다"라며 "에어시티, 복합휴양관광단지, 첨단산업단지, 군부대 이전 등 각각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위군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전략사업 T/F팀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본사인사 편집국/지방부 부장 조미경(경산담당) 부장신경운(경산담당) 의원면직 5월 13일자

강한신문 대구광역시 '복지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y.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화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축제에 빠진 영양... 넉넉한 시골 인심 그대로 넉넉하다

전국 제일의 동물복지 도시 실현  
넉넉한 '인심' 넘치는 기부 사랑  
문화의고장 영양 온누리에 알려  
사람과 자연 동물 공존하는 세상

영양은 지금 축제 풍덩 빠져있다.  
고을마다 정겨움이 넘쳐난다.  
시골 넉넉한 인심에 관광객들은 한껏 매료됐다.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영양은 지금 사람과 자연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넉넉한 인심 넘치는 기부사랑에 영양은 모두 하나가 됐다.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이다.

### ■제17회 조지훈 예술제 성황

제17회 조지훈 예술제가 지난 11.12일 이틀간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 일대 열렸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참가인원과 문학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영양문인협회(회장 황태진) 주관으로 열렸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선비인 조지훈의 문학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백일장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를 대상으로 '동물원의 오후, 우주의 생명, 오렌지빛 하늘시제로, 사생 대회는 주실마을 일월의 주제로 진행됐다.  
조지훈 예술제 공연 프로그램에는 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도립 국악단 대북공연, 승무공연, 조지훈 시(詩)가 곡음악회, 조지훈시낭송 퍼포먼스, 영양원뿔춤 공연이 진행됐다.  
김난희 여사의 작품전시회, 영양문인협회 회원들의 시화전 등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조지훈예술제는 문화의 고장 영양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입니다. 또한 주실마을은 조지훈 시인의 사상과 문학의 뿌리가 되는 지조 있는 선비의 고향이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조지훈 시인의 사상과 작품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출신인 조지훈 시인은 청록파 시인으로 승무화화등 수많은 민족의 유산을 남기며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학의 거장이다.  
전통적인 운율과 선의 미학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다.

###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실시

영양군은(은 제19회 산나물 축제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군청 전정 및 북개천 고기골터에서 2024년 영양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했다.  
행사는 영양군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지역 생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 등 사육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소비자 직거래로 소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우·한돈은 부위별로 시중가 대비 12~32%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고 한우 숯불구이 터 영양영양 도종계란 판매 촉진 행사 등이 병행·운영됐다.  
청정지역 영양에서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도종계란 홍보를 위해 1인 1판 선착순 무료 및 방문객 달걀 뽑기 당첨 등 특별한 행사도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품질 좋은 축산물을 착한 가격에 구매하고 도종란까지 무료로 증정받아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영양의 깨끗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자주 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비 촉진 행사는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고 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시식·체험·판매·참여 마당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영양 산나물의 맛 향기 흠뻑

같은기간 내륙에서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일월산에서 산나물 채취체험행사를 했다.  
군은 산나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여러 조건을 지니고 있다.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영양군의 전체 814.7㎢ 중 87%가 산지로서 이뤄져 있다. 토양은 산나물이 서식하기 좋은 갈색삼림토로 산나물과 희귀 약초들이 많이 자란다.  
체험행사는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의 일환으로 봄이 주는 청정 자연의 선물인 '산나물'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 다른 지역 도시 주민 약 20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영양군은 체험행사를 위해 축제 초기부터 영양만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산나물이 자라는 일월산 일대를 특별 관리해 오고 있다.  
처음엔 산나물을 알지 못해 해매는 체험객들도 있지만, 직접 뜸어서 보여주는 산나물 선별 안내자의 진절한 설명을 들곤 곧 산나물을 찾고 뜸는 재미에 빠진다.  
영양 산나물은 그 자리에서 뜸어서 맛을 보아도 될 만큼 깨끗하고, 무공해이다.

산나물의 맛을 보고 향을 맡으며 산을 오르내리락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때이다.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땀을 식히고 담소도 나눈다. 부산에서 온 한 참가자는 산나물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도 너무 좋다.  
나물도 한 가방 뜯고 또 이렇게 소풍 오듯이 야외로 올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웃음 짓는다.

###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 행사

영양군은 산나물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영양읍 동부리 339 내 동물보호센터 신축 예정지에서 "제2회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참여형 4개 존(zone) 12개 부스를 운영했던 작년과 달리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지역주민 위주로 반려동물 사진 등록과 함께 무료 건강검진 및 광견병 접종이 진행,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 체험행사가 병행됐다.  
경북권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영양군이 2년 연속 개최한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 행사는 반려 문화 조기 정착과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전국 제일의 동물복지 도시를 실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는 무엇보다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이 중요하데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펫마켓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영양군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2022년 유기 동물보호소를 개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경북권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다.  
공모 확정된 사업인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보호센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영양 고향사랑기부 행사 성공

산나물축제 기간중 진행된 영양군 고향사랑이벤트 '기부하고! 산나물 따라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1762 만원을 모금했다.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동안 축제장내 고향사랑부스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자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사랑상품권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사를 했다.  
축제기간중 117명 기부에 참여, 1162만원이 모금됐다.  
남영양농협·영양군지부·봉화 춘양농협 상호기부(500만 원), 농협 영농회 회원(100만 원)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받아 산나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의 대표축제인 산나물축제를 찾아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영양발전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줄이어

산나물축제 기간인 11일 남영양농협(조합장 박명술)·영양농협 군지부(지부장 장문석) - 봉화 춘양농협(조합장 김성환) 직원들이 50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농협 영농회(회장 최진수) 회원들이 영양군을 찾아 100만 원을 기탁했다.  
남영양농협·영양군지부 - 봉화 춘양농협 직원들 50명이 뜻을 모아 각 지자체에 10만원씩 500만원 상호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상호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근 지역간 상생발전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박명술 남영양농협 조합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 하는 문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 출신 회원으로 이루어진 농협 영농회 회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양산나물축제장 내에 설치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 방문, 현장에서 기부, 고향발전을 응원했다.  
최진수 영농회 회장은 "올해도 영양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라며 "축제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부스를 찾아 기부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상호기부에 뜻을 모아준 남영양농협·영양군지부·봉화 춘양농협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매년 영양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영농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 드린다.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영양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운동 기자



### 예천군, 음악 아저씨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예천군은 오는 28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제62회 예천군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음악아저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를 초빙,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K팝의 이야기를 듣는다. '음악아저씨'로 널리 알려진 임진모 평론

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내외경제신문 기사를 거쳐 1991년부터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30년 넘게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예천군민아카데미는 예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천군 통합교육포털(www.edu.ycg.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행정지원실 평생교육팀(650-6198)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 상주막걸리 찐~맛... 관람객 발길 사로잡았다

## 상주의 주(酒)벤저스 떴다 2024 막걸리 엑스포 참가

상주시는 지난 10~1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막스포)에 참가해 상주막걸리의 찐~맛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2024 막스포에 참여한 은척양조장, 상주주조, 상선주조 및 다담도가 4개의 업체는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진 양조장들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며 상주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렸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막걸리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오래된 친구와 같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의미에 걸맞도록 상주의 좋은 농산물과 좋은 술을 빚겠다는 장인 정신이 만들어진 막걸리가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한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주조, 상선주조 및 다담도가 막걸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주시의 신생 양조장으로 국내 최고의 술을 가리는 '2024 대한

민국 주류대상'에서 전통주류(탁주 생막걸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생바질 담은 찐살 막걸리인 '바질 막걸리'로 알려진 상주주조는 20~30대 중심의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상선주조는 국내 최초로 내면을 이끄는 '명상주' 콘셉트의 12도이지만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이너 피스 2종 캄과 플로우로' 다담도는 상주 최고의 찐살과 멍쌀을 8:2 비율로 사용해 달고 청량감이 있으면서 깊은 맛을 내는 '조오탁8%'로 수상했다.

다담도가의 '조오탁8%'는 대상작 중 우리술 탁주 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상선주조의 이너피스는 제품 출시 후 미술레스토랑 등 국내 50개 업체에 납품하는 한편 올해 4월에는 싱가포르 한식 레스토랑과 수출 계약을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은척양조장은 2016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선정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상주막걸리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 예천통명농요, 제34회 정기발표회 선배

제34회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 정기발표회가 지난 12일 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에서 열렸다. 예천아리랑을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예천통명농요의 모심기(마당(아부레이수나, 도요소리), 논매기(아벌매기, 후벌매기, 방애소리, 에히용소리), 타작(마당(봉혜야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마당(캠마공공노세노세) 전 과정을 선보이며 우리 농요의 멋과 흥을 전했다. 예천통명농요는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농민들이 불렀던 노래로 '예천통명농요보존회'는 매년 정기발표회를 통해 잊혀져 가는 농요와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청도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중

### 70세 이상 청도군민 예방접종 전액 무료

청도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민의 안녕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발진을 유발하여 환자의 삶을 크게 제한하는 질병으로,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청도보건소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제공, 고가의 백신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목받고 있다.

시행 두 달 만인 5월 12일 기준 총 3천183명이 혜택을 받았다.

청도군은 총 5500개의 백신을 구입, 현재까지 3500개를 확보, 접종 중이다.

남은 2000개의 백신도 곧 수급된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청도군에 6개월 이상 거주지를 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 번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자이다.

접종을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병률 및 후유증 감소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청송군, 저출생 문제 극복 주4.5일제 전격 시행

### 근로자 일상 회복 삶의 질 더욱 높여 저출생 문제 극복

송군이 6월부터 주4.5일제(주36시간) 근무제를 전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내부 논의를 거쳐 13일 기관단체장과 근로자 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

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 기관단체의 근로시간 주4.5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다.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한다.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병문 기자

## 청도군의회, 강원 화천군 벤치마킹 방문

### 청도현실에 맞는 정책 시스템 만드는데 최선을



청도군의회는 육아, 돌봄, 교육의 최우수 선진지로서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을 벤치마킹했다. 방문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1.26명의 합

계출산율을 기록한 화천군의 정책을 청도군 발전에 녹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의원들은 원어민 영어교실과 스테디카페, 영유아 실내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춘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와 임신·출산 지원의 상징적 공간인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노력을 멈추지 않는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한 화천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뜨거운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청도군 육아, 돌봄, 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청도군 공직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도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예천군, 이정오 주무관 큰 賞 받았다

### 지적분야 연구과제... 경북도 최우수상 수상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이정오 주무관이 큰 상을 받았다.

지난 9.10일 이틀간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경북도 지적업무 공동연수에서 지적분야 연구과제 '정책 및 사업분석을 위한 지적정보 효과적 활용방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구동규(의성군) 주무관의 'QGIS를



활용한 연속지적도 정비' 금병욱(고령군) 주무관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자동

작성 모델 구성방안'이 각각 수상했다.

2024 경북도 지적업무 공동연수는 22개 시·군이 참여했다.

지적 분야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지적제도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군 역량수행자 상호간 정보교류를 위해 개최됐다.

이정오 주무관은 2024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업무 토론회에 경북도 대표로 참가, '지적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과제는 향후 지적업무에 관한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우리 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업무 능력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토지 행정 서비스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 문화유랑단이 우리동네 왔네~

### 칠곡 5개 면지역서 홍남치는 공연 개최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 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에서 만나는 문화유랑단'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멀리 있는 공연장이 아닌 일상 속에서 좀더 가까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동네공원을 찾아 현장을 무대삼아 공연을 펼칠 때 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4일 동명면(송산3리)을 시작으로 가산면(노석2리), 지천면(심천2리), 가산면(천평리), 약목면(동안리)의 칠곡군 5개 면단위 지역에서 공연했다. 그동안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악공연, 디스코장구, 트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손영실 칠곡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문화유랑단은 지역민이 거주생활권 내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칠곡'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한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앞장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찾아가는 국

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업종 내 숲경영체형립 조성 허용 △양수발전 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임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주시 행정동우회, 남산가꾸기

경주행정동우회원이 경주 남산 삼릉을 찾아 환경정비와 산불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이날 70여 명의 회원과 산불진화대원 30명, 시 관계자 10명이 함께 했다.

회원들은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어깨띠, 피켓 등을 손수 준비해 환경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규익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동참해 회원 격려는 물론 산불예방 홍보 등 자연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행정동우회는 1986년 경주시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결성된 봉사단체로 평소에도 남산 가꾸기, 황성공원 정화 활동, 경주시장 학회 장학금 기부 등을 실천해 오고 있다.

# 경주 건천지하차도,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주변상권 단절 지역발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경주 건천지하차도'가 5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경주시가 13일 건천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신경주농협 일대에서 진행된 개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시·도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건천지하차도'는 서울 청량리와 경주 도심에 있는 '중앙선' 열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70년 준공된 지하 통행로다.

하지만 준공 이후 하절기 침수피해와 동절기 결빙사고는 물론, 주변 상권을 단절시키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2021년 12월 '중앙선'이 폐선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폐철 구조물 철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지하차도를 철거기로 결정, 지난해 9월부터 지하공간을 매워 주변 도로와 같은 높이로 만드는 구조개선사업에 본격 나서 최근 개통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구조 개선이 이뤄진 평면화 구간은 총 200m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건천지하도 평면화 사업으로 주변상권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됨은 물론 공사기간 불편을 참고 기다려 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도로 구조개선으로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낙영, "지역소멸 반드시 막겠다"...

### 시니어클럽 회원 대상 도시경영 위기 특강...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주시장은 13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니어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도시 경영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특강은 노인일자리 주관 단체 참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 경쟁력 약화와 지방 소멸 원인은 도

시 집중화에 따른 인구 이동,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병원·주거 인프라 불균형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원 부족 등"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경주 산업구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율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뿌리산업이 발달했다"라며 "지역 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추진으로 외국인을 정착시켜 경제활동 촉진은 물론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운영,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조성, 실버 세대 열풍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노인일자리 사업 등도 향후 더욱 내실 있게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 4월말 기준 현재 6만5341명으로 전체 인구(24만6081명)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자 등록이 없는 지역 예비 창업자로 6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추후 일정은 6월 11일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예선에서 서면평가와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선발해 7월 23일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한다.

결승을 통과한 팀에게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창업 아이템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화 검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창업 필수교육 및 지역 창업 프로그램 연계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13일 오전 신경주농협 일대에서 열린 건천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 준공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숙박시설 여건 '이상무'

### 주 회의장 반경 10km 이내 수요 대비 280% 객실 확보



경주시가 오는 6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숙박시설에 대해 수요대비 충분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

다고 13일 밝혔다.

2023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핵심 회의장인 '모스콘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숙박시설이 있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기준의 경우 현재 경주시는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반경 3km 이내 103개소, 4463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정상 및 정부대표단 수요대비 157%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반경 10km 이내(시내권) 1333개소, 1만3265실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경제대표, 미디어 관계자, 행사지원 요원 등의 수요 대비 280% 객실 확보하고 있다.

주 회의장 주변으로 40평 이상의 정상용 5성급 호텔 및 스위트룸 등이 10개소, 223실을 갖추

고 있어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숙박시설 외에도 보문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과 특정 국가의 종교 활동을 위해 독립된 종교관을 설치·운영한다.

각 호텔별 투숙 국가에 대한 식단 및 비품 등을 사전에 파악해 최상의 서비스를 물론 숙소 로비에 통역 데스크를 설치해 편안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우수한 경호와 안전, 편리한 공항시설 및 교통여건에 더해 이미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의 운영 여건에는 손색이 없다.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지방시대 균형 발전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국제회의도시 경주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오늘 부터 접수

경주시는 14~24일까지 11일간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기회 제공

을 위해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17개) 2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11개) 53명 등 총 78명이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공공근로 3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선발결과는 6월 25일 개별 우선 통보한다.

사업에 선발되면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주휴일차수당, 간식비 등이 지급된다.

## 경주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 2024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경주시가 황오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이끌 혁신 아이템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성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사업화 지원금도 지급한다.

참가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축제의 계절...살기 어려워도 마음만은 풍요

마을마다 남녀노소 모두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곁게 단장한해의 농사 잘되기를 기원 축제 오색찬란 불빛속에서 추억 간직



김인현, 영덕군에 1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덕군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 교수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고향 영덕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 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김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보내 주신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작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해 남다른 고향 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청도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부처님 오신 날' 인파집중

청도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행사 및 인파집중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해 14일부터 3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행사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연등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림에 인접해있고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 등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점검 △사찰 관계자 대상 화재 안전지도 △화재예방 홍보 및 캠페인 추진 △24시간 화재 감시 체계 구축 등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상시 출동 태세에 나섰다.

축제의 계절이다. 매년 5월이면 지자체마다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 문화향유 등 다양한 축제들이 줄을 잇는다.

봄에는 농사철을 앞두고 여가를 이용, 마을마다 남녀노소 모두가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곁게 단장한다.

한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축제다. 고을마다 열리는 큰잔치는 풍성하다.

주머니사정은 빠듯하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마음은 풍요롭다.

축제장에서 모처럼 웃고 즐긴다.

가족과 연인의 손을잡고 오색찬란한 불빛속에서 추억을 간직한다.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 영덕 효콘서트 성황

영덕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덕군민운동장에서 '효(孝)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엔 김광열 영덕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당선인,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을 비롯해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 3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북도와 영덕군, 영덕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덕군과 울진군이 협력해 '이웃 사이 문화 예술공연'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울진군민을 위한 500석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배려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은 이웃 군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간의 문화 활성화를 촉진했다.

무대엔 장윤정, 조명섭, 양지은, 박민준, 김태욱 등 전 국민의 사랑 받는 트로트 가수들이 올라 공연을 펼쳤으며, 이외에도 대북 공연, 영덕군 청소년 무용단의 오프닝 축하 공연 '꿈의 무용단 영덕'이 이어져 흥을 돋웠다.

오프닝 무대엔 김광열 영덕군수와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의 내외가 짝꿍 출연해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기획한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영덕과 울진은 물론 포항·안동·경주 등지에서도와 주저서 이웃 지역민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며, "이웃사이 문화 예술공연 프로그램으로 울진군이 '씨시봉 콘서트'와 '3DIVA' 공연을, 영덕군이 '효콘서트'와 '조수미 콘서트'를 마련한다"고 알렸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아버이날 어르신들에게 보은의 마음으로 마련한 효콘서트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화려하게 꾸며져 참여한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한껏 즐길 수 있는 한마당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울진바지계시장 동행축제

울진군은 지난 12일 어린이,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친근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4 울진바지계시장 동행축제를 열었다.

울진바지계시장 동행축제에서는 트러버스킹공연, 가자미시해 당구기 체험, 영수증이벤트, 심이령투어 이벤트, 인스타그램 이벤트, 보부상 콘텐츠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울진바지계시장 홍보 기회를 마련했다.

울진바지계시장의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고객에게는 울진산불피해 소나무를 활용한 희망씨앗심기키트를 증정해 울진산불피해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행복한 가정의달 5월의 축제로 진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바지계시장 동행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어울려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축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을 통해 울진만의 특화된 전통시장 만들기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울진매화면 경로 효잔치

울진군 매화면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매화면문화

체육회 주관으로 '제26회 매화면 경로 효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800여명과 유관기관 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매화2리 신우균씨와 덕산1리 정삼미씨에게 효행상 표창패를 수여하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매화면문화체육회에서는 매화면 부녀회 도움으로 떡, 문어, 과일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국악공연, 지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흥겨운 경로잔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매화면 경로 효잔치"를 주관한 배덕화 매화면 문화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만에 개최된 행사가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지역행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지역회합으로 매화면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매화면장은 "매화면 경로 효잔치를 위해 애써주시는 각 지역단체 및 참석해 주신 어르신과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에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발맞추어 어르신들이 더욱 살기좋은 매화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을 이끄는 어르신자 리더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

다"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울릉군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울릉군은 ㈜엘프프로페셔널이 주최하는 '엘프수상자와 울릉군민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도동항 소공연원과 한마음회관에서 열렸다.

공연은 프로 색소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가 함께 어우러져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주)엘프프로페셔널은 창립 30주년을 기념, 2018년에 제1회 엘프 색소폰 콘테스트를 개최한 이후로 올해 제7회 엘프 색소폰 콘테스트가 열렸다.

2011년 색소폰나라 독도원정대를 시작으로 2020년 7월에는 울릉도색소폰문화봉사단과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 올해는 울릉도에서 색소폰 연주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엘사모의 '울릉도 트윈스트', 색소포니스트 안드레황의 '중독된 사랑', 'Tear' 등 33곡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문화소의 지역인 울릉도에서 꾸준히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는 (주)엘프프로덕션 관계자 및 연주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이정수 기자  
정윤환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 농지

지가 있다면

#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 역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광부상 지목이 전담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정령하GO! 우리 함께 정령하GO! 모두 정령하GO!"

**kf**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Kfrc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농어촌공사) 제 C-2021-02419052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내과의원장  
고령군수 표창

고령군은 출산지원사업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조성에 힘쓴 최내과의원(대가야읍 소재) 원장에게 13일 군수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최내과의원은 1999년 9월에 고령군에 개원해 25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언제나 친절하고 직원들과 원장님의 따뜻한 진료로 누구나 찾고 싶은 우리 동네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출산지원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힘써준 최내과 원장님께 감사의 전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 일·가정 양립 가치 확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봉화 농협군지부 11일  
고향사랑 상호기부 동참

봉화군 춘양농협과 영양군 남영농협, 농협군지부는 지난 11일 영양산나물 축제장에서 우호증진 및 지역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날 상호기부는 각 50명씩 500만 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김성환 춘양농협 조합장은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호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 '배우 정호빈' 13일 홍보대사 위촉

영천시는 배우 정호빈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에서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지난 2021년 영천과 인연을 맺은 정호빈은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한 후 '주몽', '선덕여왕', '친구2', '우아한 집'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장은 "작품에 완성미를 더하는 배우 정호빈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영천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호빈은 2026년 5월까지 2년간 영천의 문화, 관광, 농·특산물 등 시정 전반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최은하 기자

단산~부석사 도로 개통...영주·영월·단양 연결

착공 8년 만에 정식 개통  
주민 접근성 대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주시는 단산~부석사간 도로' 개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강원 영월, 충북 단양을 연결하는 단산~부석사간 도로가 건설공사 착공 8년 만인 13일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경북도가 개최한 개통식에는 임종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박남서 영주시장,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각 지역 의원과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단산~부석사간 도로는 길이 10.45km 총사업비 1천285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6년 8월 1일 공사가 시작돼 지난 4월 임시개통을 했고 13일 정식으로 개통됐다.

특히 3.03km에 이르는 마구령터널 개통으로 부석면 입곡리에서 부석면 남대리까지 이동시간이

30분 가량 줄어든다. 터널을 통과하면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을 통해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으로 바로 연결된다.

영주시는 이번 도로 개통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마구령 터널 개통을 위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영주시민을 대표하여 감

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구령 터널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 3도가 함께 새로운 발전을 향해 뚝뚝 뻗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성기 기자

제22회 영천한약축제 추진상황 설명회...

한약 축제성공을 위한 의견 수렴  
축제기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영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2회 영천한약축제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서종만 한약축제추진위원장, 축제추진위원 및 관계부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축제 행사계획 설명과 축제성공을 위한 의견 수렴, 축제위원회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원활한 축제진행을 위해 개최됐다.

올해 22회를 맞이한 영천한약축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영천한마음에서 열리며,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작약꽃 체험행사도 시작돼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 한약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오는 17일 제22회 영천한약축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TBC한약DREAM콘서트, 드론라이프쇼, 대구경북 시·도민과 영천시민이 참여하는 영천다락방가요제, 한약재 활용 체험 시바이벌 게임인 한약피지컬30, 박지현(V.O.S)이 진행하는 한약 힐링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한약재와 한방제품,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영천한약촌, 한의학과 중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한방치유존,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영천건강밸런스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한약인속촌, 한약키즈랜드 등 다양한 체험 및 이벤트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는 물론 교통, 주차장, 편의시설, 안전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도 면밀히 보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축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축제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의 오감만족과 영천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모두가 합심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전통대모리얼파크 주차장에서 스타전문정비영천시협의회 회원 50여 명과 함께 축제 관광객 및 시민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은하 기자

성주참외 무료 시식회, 성주참외 맛보세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용암면회, 성주참외 무료 시식회 행사 개최

성주군 용암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성주군 용암면회는 지난 11일 남성주IC 휴게소에서 성주참외 무료 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품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오는 16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홍보와 성공을 위해 개최됐다. 휴게소를 찾은 방문객들은 제철을 맞아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참외를 맛보며 판매장에 들러 참외도 구입하고, 성주군 캐릭터 참별이와 함께



은 당도를 자랑하는 참외를 맛보며 판매장에 들러 참외도 구입하고, 성주군 캐릭터 참별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시식회 행사를 즐겼다.

정주식 회장은 "젊은 농업인들이 참외 생산뿐만 아니라 직접 키운 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얼마전까지 성주참외 농가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저급과 발생이 늘어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현재는 참외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늘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도 참외 주수입 6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31일까지 일제단속

최대 2천만원 과태료,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영주시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영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대지시스템 및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및 유통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 제2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의성군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체 및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개인이며 의성의 관광지를 방문하여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체관광객의 경우 관광버스 대당 30만원(당일)에서 50만원(숙박)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개인 관광객은 관내에서 소비한 금액의 총합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5

월부터 8월까지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행 일정 5일 전까지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의성군 관광문화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의성군 관광문화과(☎054-830-63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관광 지원사업을 통해 의성군이 매력있는 관광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영농철 맞아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60명 추가 입국

의성군은 지난 9일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60명이 추가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6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시작한 현재 100여명의 계절근로자들이 관내 농가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번 입국을 통해 총 200여명의 근로자가 농촌의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근로자 입국 즉시, 마약검사·기초건강검진과 입국설명회를 개최해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대상 근로조건, 인권 침해 방지 등 안전교육 및 통장개설 신청(농협은행 의성군지부 협조)을 하고 의성경찰서와 보건소의 협조로 범죄예방, 마약예방 교육도 추가로 실시한 뒤 사고, 고추, 가지제배 등 관내 30 농가에 배치되어 농번기 일손부족현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다수는 전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입국 근로자들로 배치됨에 따라 근로자의 농가 적응을 높일 것이다.

농가 또한 숙련된 근로자와 일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5개월간 근로기간을 마치고 농가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절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오는 7월까지 총 40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고 이후 하반기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통해 수확기 인력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가로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100세 건강법

생활 속 스트레칭, 제대로 알고 하십니까

15초 버티고 이후 10초 휴식  
'강도·시간·휴식·자세·호흡'

편집자주 건강에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었지만 모든 운동이 건강에 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몸에 해가 되는 줄도 모른 채 무작정 땀만 흘리는 사람들도 적잖다.

운동,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한 바른 운동법을 소개한다. 스트레칭은 운동의 기본 중 기본이다. 대부분 평소 스트레칭을 하며 생활한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이나 사무실에 오래 앉아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다리를 펴고 어깨를 돌리는 것, 약수터에서 자기만의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모두 다 스트레칭이다. 늘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지금까지 스트레칭으로 알고 했던 동작들이 사실은 좋은 운동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 '기본'일수록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바른 스트레칭법을 알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100'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최영우 운동처방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국민체력100'은 만 11세 이상 국민 대상 개인별 체력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다.

"스트레칭이야 뭐 대중 혼자서도 하지" 하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고 난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좋은 스트레칭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빨리 하는 것, 몸이 아프도록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서둘러 '본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옆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 대충하면서 '횡수'를 마쳤다는 데만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칭법이다.

최영우 운동처방사는 "다리를 찢는 동작으로 예를 들면, 다리를 찢은 자세를 갖춘 상태에서 15초에서 30초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뒤야 한다."

다리를 벌리는 과정이 아니라 다 찢고 난 뒤에도 많은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천히 조금씩 늘려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다리를 찢으면 최소 15초는 인내해야 한다. 천천히, 15초를 해야 하는 데는 다 운동학적 이유가 있다. 최영우 처방사는 "근육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강하게 늘어나면, 근육의 감각을 체크하는 기관

인 근방추가 이를 '내 몸이 지금 위험하구나' 하고 판단해 뇌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신장반사가 작용해 근육이 수축, 스트레칭을 하기 전보다도 몸이 불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무줄을 천천히 조금씩 늘려야 고무줄도 그에 맞게 늘어날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갑자기 확 당겨버리면 끊어지지 않기 위한 반작용으로 확 움츠러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스트레칭이다.

한 번 스트레칭을 한 뒤 다음 스트레칭까지 시간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육의 수축을 감지하고 이완하게 하는 건 골지간기관인데, 이 기관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이완반사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2~3초 잠깐 다리를 쭉쭉 찢어봤을 때 느낌이 시원할지 몰라도, 아직 몸이 이완반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전이므로 실제 근육의 이완과는 관련이 없다.

최영우 처방사는 "스트레칭이 잘 되려면 센서 2개를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 "근방추가 근육을 수축시키는 센서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적당한 힘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골지간기관이 이완반사 센서를 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근방추 센서는 안 켜지게 조심. 골지간기관 센서는 켜질 때까지 기다려주기. 그러면 몸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 몸이 인지할 수 있게 15초 이상 해야 한다.

스트레칭의 5요소는 '강도', '시간', '휴식', '자세', '호흡'이다.

우선 강도와 시간은 앞서 언급한 '2개의 센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강도와 시간은 서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강도가 너무 세면, 충분한 시간 동안 다리를 찢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약하게 해서 시간만 길게 하자니, 과연 스트레칭이 되는 건지 확신이 안선다.

최영우 운동처방사는 "스트레칭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내가 아픔을 참는다고 근육이 더 잘 풀리거나 유연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통증이 전혀 없는 게 오히려, 못 견딜 아픔이 100이면 3에서 5 정도로 '약간 불편한' 정도가 적당하다"고 강도에 대해 조언했다.

휴식도 중요하다.

근육은 수축할 때보다 이완할 때 오히려 부상을 많이 입는다. 스트레칭도 휴식이 없이 강도 높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피로를 주고, 이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운동 선수들도 경기를 하기도 전에 스트레칭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미시, 제62회 경북도민체전 6년만에 우승컵 탈환...



구미 스포츠 도시 면모 한껏 발휘 도민 하나되는 '축제의 장' 즐겨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4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13일 막내렸다.

'새희망 구미'에서 하나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구호로 열렸다.

대회에는 육상, 축구, 농구, 야구 등 30개 종목에 22개 시·군 1만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24개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구미시 6년만에 1위 탈환

대회 결과 종합성적 시부에서는 개최지 구미시가 253.9점으로 1위를 차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했다.

포항시(235.4점)와 경산시(183.5점)가 그 뒤를 이었다. 군부는 칠곡군 126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울진군 116점, 3위 예천군 108.9점이 차지했다. 칠곡군은 지난해 울진군에 내줬던 1

위를 다시 찾았다. 김천시와 영양군이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했다.

시부 입장상에는 1위 경주시, 2위 상주시, 3위 영주시가, 군부 입장상에는 1위 고령군, 2위 상주군, 3위 울릉군이 선정됐다.

성취상은 영천시와 봉화군에게 돌아갔다.

개인시상에서는 시부 구미시양지원(4관왕, 구미시체육회) 수영종목 선수와 군부 칠곡군 김수지(4관왕, 경북체고2) 육상종목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9명의 4관왕을 포함해 모두 63명의 다관왕과 2개 종목(수영, 육상)에서 21개의 대회신기록, 1개 부별신기록이 수립되는 등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다.

수영 육상 22개 대회 신기록

이번 대회에는 30개 종목(정식 28, 시범 2), 960명(선수 641, 임원 319)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구미시는 유도, 검도, 레슬링, 씨름, 보

디빌딩, 승마 등 우승을, 자전거, 인라인 롤러, 산악 등 다수 종목에서도 2위의 성적을 거뒀다.

대회에서 수영과 육상 종목에서 22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왔다.

이 중 6개의 기록이 구미시 선수단의 기록이다. 구미시 체육회 수영팀에서 4개의 신기록을 달성해 구미시 수영의 저력을 보였다.

육상 종목에서는 박소진(투포환, 한국체대) 선수가 대회 신기록을 달성했다. 구미 육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은 지역가수 도희의 공연과 시니어 패션쇼를 시작으로 성적 발표, 종합상상이 진행됐다. 내년 개최지인 김천시에 대회를 전달하고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도민체전 개막식에 4만 5000여 명이 찾았다.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돼 시민들과 구미를 찾은 방문객들은 스포츠를 통한 축제의 장을 만끽했다.

체전 내내 시민들은 질서 유지, 대화 용기 도시락 사용 등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였다.

공무원 600명과 자원봉사자 1000명은 원활하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했다.

김창호 구미시장은 "12년 만에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6년 만에 1등이라는 성적을 거둬 기쁘고, 구슬땀을 흘린 선수단, 자원봉사자들과 성공적인 개최와 구미시 종합 우승 달성을 위해 선수단 운영에 열정을 쏟아준 구미시 체육회와 윤상훈 체육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응축된 역량을 통해 오는 8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와 내년에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체육회는 바통을 넘겨받은 차기년도 개최지 김천시와 함께 '2025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나선다. 이은진 기자

김천상무, 울산과 2대 2 무승부... 7경기 무패행진

김대원 두 경기 연속골 김태현 원더골 힘입어

김천상무가 울산과 2대 2 무승부로 7경기 무패행진을 달렸다.

13일 김천상무프로축구단에 따르면 전날 울산 HD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R 경기에서 2대 2 무승부를 거뒀다.

김천상무는 김대원의 두 경기 연속골과 김태현의 원더골에 힘입어 7경기 무패행진을 달렸다.

김천상무는 울산전 승리를 위해 골키퍼 김준홍을 필두로 박민규, 김봉수, 김민혁, 김태현으로 수비진을 구성했다. 중원은 원두재, 서민우, 강현욱이 선발로 나섰다. 정지인, 김대원, 이영준이 스타톱을 맡았다.

김천상무는 1분이 채 되지 않아 강현욱의 돌파 후 중거리 슛과 코너킥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듯했다.

하지만 전반 2분, 울산의 역습 상황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처리하지 못하고 헤더로 실점을 내줬다. 김천상무는 이른 실점 후 시종일관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김천상무는 빌드업 상황에서 오른쪽 풀백 김태현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고, 좌우 측면 공격수 정지인과 김대원의 스위칭 플레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을 공략했다.

공세를 이어가던 김천상무는 전반 28분, 동점 기회를 만들었다. 울산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페널티 박스로 진입한 강현욱이 수비에 걸려 넘어졌다.

VAR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어 키커로 나선 김대원이 깔끔한 슈팅으로 동점골과 동시에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하며 1대 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현욱과 박승욱을 교체 투입한 김천상무는 후반 51분, 프리킥에서 실점하며 재차 리드를 허용했다.

전후반 모두 킥오프 후 수비 집중력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점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김천상무는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전방에서부터 울산을 압박했다.

후반 61분에는 서민우를 빼고 김진규를 투입하며 중원에 변화를 줬다.

이어 이렇다 할 기회가 없자 후반 73분, 김민준까지 교체로 넣으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김천상무는 원두재의 통패스를 활용한 공격을 전개했다.

후반 80분, 원두재가 침투하는 김민준을 향해 정확한 패스를 넣어줬고, 이후 이영준의 헤더 슈팅까지 만들어냈다.

후반 85분에는 이종민을 교체 투입하며 높이를 강화했고, 크로스를 통한 기회를 만들었다.

계속 울산의 골문을 두드리던 김천상무는 후반 추가시간, 김태현의 단독 돌파에 이어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2대 2 동점을 만들었다.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김천상무는 7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김효주, 유럽여자 프로골프 대회서 우승



고진영(솔레이어)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 컵'(총상금 300만 달러·약 41억원)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고진영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김세영(메디힐) 등 5명과 함께 공동 12위로 마무리했다.